

고추농사 단상

김 순 갑(농민 집사, 전북 완주 금당교회)

작년 기후는 태풍과 잦은 비로 고추농사엔 특별히 안 좋았던 한 해였다. 역병과 탄저병 등으로 대부분 중도에 끝나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올해에는 새로운 희망으로 다시 시작하였다. 고추모는 2월10일에 파종하였는데 꾸준히 배우면서 연구한 환경농업 덕분에 내 고추모는 농약없이 잘 자랐다. 고추농사 뿐 아니라 모든 농사에서 세상적인 욕심을 줄인 후에는 농사가 잘 됐다. 수확도 많아졌고 무엇보다도 농비(農費)가 적게 들었다.

환경농업에 입문한 지 5년여. 작년에는 악천후에도 기존농가 보다 고추수확을 두어 물 더했다. 환경농업을 하면서 나는 우리 마을에서 정신나간 사람 취급을 받았다.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내 살길로, 내방식대로 하였다. 오로지 환경농업에 혼을 다 쏟았다. 논에는 우렁이로 제초를 하고, 밭에는 일부러 풀을 키우고, 돌가루, 목초액, 식초, 녹즙 등을 사용하였고 벼에는 밀거름 비료도 안주는 엉터리 농사를 지었다.

가장 큰 인식의 차이는 화학비료의 사용여부였다. “어디 비료 안 쓰고 네 놈이 농사지을 수 있나 보자” 하면서 버르는 사

람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상한 일이, 그 사람들이 내 농사터엘 잘 들리려고 하지 않는다. 고추밭에, 참깨밭에 생강켄 때 훌륭하게 잘 된 농사를 접해야하기 때문이다.

신지식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우리의 농민들, 편안히 농사지으려고 작물의 편안함과 행복은 생각지도 않는 것 같다. 무제초제, 무화학비료, 무농약, 얼마나 신선한가!

먹거리가 어떻고를 떠나서라도 내 농사는 농비가 아주 적게 든다. 고추밭 1500평에 목초액 1말(5만원), 현미식초 1말(1만 5천 원), 미네랄A 2ℓ (3만 6천 원, 미네랄은 이제 직접 제조), 혼합돌가루(5만원) 등이다. 넉넉히 잡은 농용약값이니 싸지 않은가! 이 밖의 비료(미강, 유박, 어분 등)는 직접 만들어서 쓴다. 제초제와 농약과 화학비료를 쓰지 않으니 땅은 자연 살아나고, 옛날처럼 쟁기질하면서 농사짓고 싶다.

농약과 화학비료를 즐겨쓰는 현 농업의 끝이 멀지 않은 것 같다. 악순환의 연속이며 끝내 땅은 곡식을 생산하지 못하고 황무한 결과를 낳게될 것이다. 옛날에는 탄저병, 역병 등 이런 저런 병명이 없었지 않은가! 또 새로운 무슨 병이 생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농약도 잘 듣지를 않는다고 한다. 이런 농산물을 누가 먹겠는가!

접어두고 고추 적게(?) 따려는 농사 이야기나 해보자. 나는 고추묘상에는 물론 이식묘상에도 시비를 적게 한다. 그래서 비대하지 않고 영양이 약간 모자란 듯한 모종으로 키운다. 그래야 정식 후 활발한 뿌리 활착이 이루어진다. 작물의 생명력을 믿고 맡기는 것이다. 3년 전까지만 해도 나도 화학비료를 사용했었다. 그러나 그때에도 밀거름으로 화학비료는 절대 넣어주지 않았다. 퇴비만을 주었을 뿐이다. 밀거름으로는 퇴비만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퇴비도 너무 많으면 안 좋다. 영양이 약간 모자란 듯한 땅, 그 정도면 정식할 고추엔 충분하다 하겠다. 고추 스스로가 일을 한다. 더 잘 살려고 영양을 찾아 뿌리를 뻗는다. 뿌리가 건설해야 농사가 잘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옛날에는 못사는 집의 며느리가 애를 더 잘

났었다. 가난하니 일을 찾아했고(뿌리) 괜한 군살 찌지 않으니(고추대잎) 별 큰 병도 안 걸렸을 테고 애만 자꾸 들어서지(고추) 않겠나.

정식을 전후한 고추나 착과 7-8개 까지는 많은 영양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밑거름이 있기 때문이다. 한물 흡수 열리는 때를 즈음해서 약간의 영양 보충을 한번 정도 해주면 족할 것이다. 고추 이랑은 널찍널찍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약간 촘촘히 심는데 햇빛, 통풍, 착색 등 모든 점을 고려해 볼 때 넓은 이랑이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삼복 더위가 닥칠 때쯤 비닐을 모두 걷어 묶어놓는다. 흐린 날씨가 아침에 벗기는 것이 좋다. 비닐 아래 땅이 너무 뜨겁다. 미생물도 뜨겁고 고추뿌리도 뜨겁고, 사람도 뜨거우면 어떻게 되는가. 시원하도록 해야 한다. 작물의 뿌리가 사람의 머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랑사이에는 풀을 그대로 키우면서 재배한다. 대충 뜯어서 그 자리에 덮어주기를 두어 번 하면 된다. 잡초와 싸우면 안 된다. 잡초 때문에 농사가 안 된다는 상식을 버려야 한다. 잡초 뿌리 부분은 미생물의 터전이 될뿐더러 작물과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간다. 작물이 치이지만 양게 제조하면 된다. 제조제 비용 줄고 땅 살리고 얼마나 좋은가. 제조제가 무엇인가? 월남 전 때 사용했던 고엽제보다 더 독한 게 농사용 제조제라고 한다.

이제 고추를 수확하기 시작한다. 이 때를 전후해서 윗거름을 자주 주어야 한다. 열흘에 한번 정도, 화학비료라면 요소와 가리를 반씩 섞어서 조금씩 주어야 한다. 한번에 많이 주면 탈이 난다. 과식은 금물이다. 이것을 몇 번 반복하면 위장 버리고 위장 버리면 신체 기능이 다 안 좋아진다. 작물을 돈으로만 생각하여 자신의 계획대로 키우려 하지말고 작물 쪽에 서서 생각해야 한다. 사람 편하자고 비료 듬뿍 주고, 제조제 뿌리고, 비닐 덮어놓고, 이런 농사가 이제 벽에 부딪히지 않았나!

밑거름 적게 하여 뿌리 활착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흡수력이 좋아 비료는 훨씬 적은 양이라도 충분하게 된다. 환경을 생각

하여 땅을 살리다보면 연작 피해도 없어질 테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환경농업은 자연을 깨닫게 해 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김순갑 집사의 주소는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금당리 이며 연락처는 063-262-7373 이다.

정기구독료를 납부해 주십시오

독자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하시는 사역 위에 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탁드릴 말씀은 정기구독료 납부에 관한 일입니다. 정기구독 신청하신 지 1년이 지난 분들은 다시 구독료를 납부하셔야 계속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책 뒷면에 있는 계좌로 온라인으로 보내 시거나 지로용지를 보내드리오니 납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